

목포시, 청정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마을 선정 3년간 매년 3백만원 사업비 지원

목포시 45개 마을이 '청정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 3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청정전남 으뜸마을 범도민 출범식'을 개최하고 사업 참가 마을을 발표했다.

선정된 으뜸마을은 매년 300만원씩 3년간 총 900만원을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지원받아 마을 환경 개선과 경관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공감과 소통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전남의 청정 자원 관리를 위해 사업 계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가는 범도민 운동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목포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쟁력있는 마을들이 선정됐다"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청정 목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45개 마을을 대상으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9월 자체점검을 거쳐 10월 전라남도 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시행...40대

함평군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9일) 기준 3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또는 관내에 위치한 법인·기업이다.

보조금은 최대 경형 150만 원, 소형 260만 원, 중형 290만 원, 대형·기타형 330만 원이며, 보급대수는 총 40대이다.

보조금 신청 희망자는 제조·수입사에서 이륜차 계약 후 보조금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들을 해당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접수 후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기이륜차 중 A/S확약 보험 가입 차종·물량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조·수입사에 정확히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본격화

영암군 현업 근로자 건강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대상 무료 제공



영암군과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전경숙)가 지난 3월 29일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교육장에서 영암군 현업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경숙 센터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건강센터가 작년 7월에 개소하여 운

영 첫해에는 센터 홍보 및 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권 근로자 4,886명이 방문하는 140%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올해는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 및 사후 관리 확대에 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특화 사업인 외국인 노동자 건강관리, 조선업 종사자 소음성난청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진단 사후관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센터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영암군 소속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업성질환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진단결과와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 상담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영암군은 건강센터와 협력을 통해 영암군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지역 내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는 전문의사를 비롯한 건강전문가(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9명이 상근하는 사업장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직업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소형건설기계 3톤 미만 굴착기·지게차·로더 등 1992명

영광군은 지난 3월 16일부터 28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 1,99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번 교육은 영광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소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미만 굴착기 32명, 지게차 34명, 로더 16명이 취득하여 82명이 교육을 마쳤다.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은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으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교육 후 무시험으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증 소지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3톤 미만 굴착기 및 로더를

임대할 수 있다. 영농현장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어 영농철 농업 인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번 교육으로 인해 조종사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안전한 농작업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속성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반복 숙달하고 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숙지하여 영농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조작성 숙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임자도 '홍매화의 섬' 선포식 가져

꽃 향기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임자도 조성 기대



신안군은 지난 3월 29일 임자도 조희룡 미술관에서 임자도를 '홍매화의 섬'으로 선포식을 갖고 섬 전체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세계질 꽃피는 1004섬 조성을 위한 1읍면 1테마 정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자도의 꽃 '톨립'과 함께, 특화 수목으로 '홍매화'를 식재하여 숲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는 임자도로 가꾸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임자면 '홍매화의 섬 추진 위원회(위원장 구동열)'는 홍매화의 섬 선포를 통해 향기 나는 섬 임자도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계질 꽃피는 1004섬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결의를 다졌다.

홍매화의 섬 임자도에는 총 13,500주의 홍매화를 식재할 계획이며, 먼저 2021년에는 6,500주를 식재하여 명품 산책로 3km를 조성하고 홍매화 외에도 동백나무와 측백나무를 함께 심어 계절감과 볼거리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임자대교 개통과 함께 홍매화 정원은 향기와 색을 동시에 향유 할 수 있는 정원으로 톨립에 이어 임자도를 새롭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한빛원전 방사선량 전광판 설치

방사선 수치·미세먼지·오존 등 각종 대기환경정보 제공

무안군은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원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제면 신정리에 한빛원전 방사선량 안내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3월 19일부터 실시간 방사선 수치 측정값과 미세먼지, 오존, 기상, 기온 등 각종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전광판을 통해 군정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가능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수치 정상범위는 50nSv/h ~ 300nSv/h(나노시버트)이며, 22일 측정된 해제면 일원 방사선 수치는 126nSv/h로 정상범위 이내로 확인된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에게 원전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해 원전인근 지역개발사업비 일부를 투입해 방사선량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대처를 통해 각종 위기상황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